

##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구하니

이번 호에 실린  
하도레 선교사의 2편의 논문은 본지  
제11호 발간시에 그의 “은퇴 기념 특집” 중에서  
기사가 넘쳐, 남긴 것을 마저  
실은 것임(편집자 주)

하도레(미, 정통장로교 선교사)  
서창원 옮김 (총신대신대원 강사)

19세기 초기에 한 뉴욕 신문에서, 오늘날 설교자들에 관한 책 한 권을 서평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아주 명예 훼손적인 글이 실렸었다.

사람들의 주된 관심거리들과는 전적으로 상관 없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것이다.

〈A. S. Hoyt, The Public & American Life〉

이것은 우리 시대가 보여 주는 전형적인 태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도서의 설교자(솔로몬)의 경우에 다른 입장을 나타낸다. 즉,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하가 다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각각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왕상 10:24 이하).

아주 오래 전(1920년)에 J. 그래삼 메이첸 박사는 1980년대에 들을 수 있는 말을 했다.

기독교는 과거 30년 전에 힘을 발휘했던 것보다 지금은 더 문명화된 세상에서 강력하고도 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결

점의 원인이 무엇인가? 내 생각으로는 그 원인이 지성적인 분야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는 데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기독교가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평가는 유용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기독교와 문화, Banner of Truth Trust〉

필자는 신학을 연구하고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무엇보다도 먼저 가르치는 성경적인 정황 안에서 위에서 다른 문제를 취급하려고 한다. 즉, 기독교가 진리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 1. 신학 연구와 신조들

오늘날 우리는 동방의 신비주의와, 다른 한편으로 오순절 운동이 급속히 자라고 있음을 본다. 이 두 운동은 인간 정신의 LOGOS보다는 PATHOS(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불안하며 두려움 및 무의미한 삶의 한 가운데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발적인 자기 표현을 강조하는 실존주의를 부각시킨다.

종교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신조, 예배, 그리고 문화이다. 우리는 먼저 “내가 믿는다”에 해당되는 신조를 생각해 보자. 아직 우리는 신약 고백적인 교회에서 함께 일어나 자체적으로 예배하고, 자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을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함께 연합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확신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목소리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신조들을 세상에 증거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동시에, 또는 똑같이 느끼는 무엇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잘못되었는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한 최후의 말씀을 읽는 것이 유익하다. 여기에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었던 옛 사도가 아시아에 흩어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편리하면서 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기록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의 첫 서신은 마음을 달래는 위안의 편지가 아니었다. 함께 울며 슬픔을 나누는 서신이 아니다. 오히려 단호히 서 있으라는 낭랑히 울리는 클라리온(나팔의 일종)이며, 지식과 삶 속에서 복음을 잘 드러내라

는 외침이었다. 그의 두 번째 서신에서도 또다시 그는 그의 순교를 눈앞에 두고 기록하면서 주된 그의 관심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증거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목이 곧은 자들을 경고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글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벧후 3:17,18).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서신 제 1장에서 지식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

- 1: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 1:3,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 1:5,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덕에 지식을”
- 1:6, “지식에 절제를”
- 1:8,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 1:9,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깨끗케 하심을 잊었느니라.”
- 1:12,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 1:13, “내가...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 1:15,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 1:16~21,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예언된 성경의 필요성, 권위, 명료성 및 충만됨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 생각나게 함, 그리고 성도들의 도덕적인 탁월함과 풍성한 열매와 연관된, 보다 더 강한 강조점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우리의 임무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에(마 28장)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는 제자들이 어떻게 느꼈는가를 재생하는 임무를 가진 자들이 아니다. 사실 그런 것들에 대

해서는 극히 작은 부분만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감정, 위안 및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성도들 간에 나누는 즐거움 등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그 모든 감정적인 풍요로움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진리를 굳게 붙들며,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오는 것이라야 한다. 제4복음서는 아주 친근한 우정 관계, 사람을 끌어당기는 듯한 친절함 감정, 친구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눈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는 모습, 그의 처절한 기도 등 감정적인 요소(PATHOS)들이 풍부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복음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렇다. 파토스(감정)가 아닌 로고스이다.

## 2. 신학과 예배 의식(Cultus)

지성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을 절하시키는 것과 더불어 마켄이 규정한 것처럼, 우리는 감정적인 요소들을 지나치게 높이 살 뿐 아니라 시각적인 것 역시 귀하게 여기는 것 같다. 즉 아름다움, 스타일과 맛 및 만족 등을 추구하는 예배 의식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예배 의식, 또는 형식, 또는 예배 순서 및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적인 표현, 특히 공예배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다루려고 한다. 필자는 우리 개혁 신학의 전통 안에 특별히 예전적(禮典的)이고 상징적인 형태로 더욱 기울어지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상징적인 것들은 감상적인 것들보다 더 심성에 관련되어 있다. 비록 감각적인 대상이나 사인(sign)이 어떤 무엇을 시사하거나 상징하는 데 사용되기는 하지만 정신적인 것과 더 연관이 있는 것이다.

필자가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회가 문서, 테이프, 교육 자료, 시청각 재료 또는 교회 도서관을 만드는 일에 재정을 투자하기보다는 교회를 장식하고 아름답게 하며, 음악적인 요소들을 부각시키는 일에 더 많이 지출한다는 것이다. 설교 사역에 더욱 더 돈이 많이 드는 것은 그 사역 자체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서가 아니라 설교하는 자들이 더욱 더 초기보다 많은 지원과 안정된 삶을 기대하거나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전체 사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매 4년, 또는 5년마다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되돌아보는 가운데 이같은 흐름의 진전은 나를 아주 놀라게 만들었다. 내가 좀 무례히

말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천년 왕국(millinery)”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교회의 “전투적(military)”인 요소에는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마치 군인이 무기보다는 군복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과도 같다. 싸우는 능력을 배양하기보다는 외모와 안정을 추구하는 군인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 안에 휴게실, 식당, 양탄자를 까는 것, 회중석을 안락하게 하는 것,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는 것, 난방 시설의 고급화, 장식 등이 크게 발전된 것을 보며, 반면에 설교 사역이나, 교리 문답, 교육 시설, 도서관 등의 설치에는 거의 진전된 모습을 보지 못할 때, 교회의 그같은 흐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배 의식의 개념을 지닌 중요 단어는 헬라어의 레이투르기아(Λειτουργία)인데 이 말에서 영어의 예전을 의미하는 liturgy라는 말이 나왔다. 레이투르기아는 엄숙한 예배를 물씬 풍기는 뉘앙스로 진전되었다. 원래 초기의 세속적인 용어보다 더욱 의식적인 사역을 띤 예배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나타난 경우를 보면 레이투르기아는 공예배의 어떤 형식적인 모습보다는 기도나 선교 사역 및 영적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위한 광범위하고도 깊은 영적 사역을 위하여 더 많이 사용되었다. 기도, 말씀 선포 사역, 그리고 롬 15:27이나 고후 9:12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 등이 레이투르기아의 양상들로 보여진다.

필자가 이미 제시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 하는 최선의 예배인지를 굳게 믿는 측면에서 우리의 체계를 재점검해야만 한다. 그러나 공예배에 있어서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전적이고 상징적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른 양상이 있음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로고스로부터 파토스로 자주 떠다니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값어치 없게 하고 평범한 것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혹은 그것이 때때로 바토스(BATHOS: 거짓 감상)는 아닌가?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자:

비록 우리가 시편을 노래하는 가운데 구약의 풍성하고도 무한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로고스와 파토스 내용을 넘나드는 측량기 어려운 풍성함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찬송가 대부분 가운데서 그러한 전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오로지 시편만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빈약하고 가벼운 노래들을 부르

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볼 때에 교회의 계속되는 표류 현상을 지적하는 것이다. 요즈음 불려지는 찬송 가운데는 정말 찬송다운 것이 드물다. 요즈음 사람들은 가볍고, 부르기 쉬우며, 흥겨운 것을 좋아한다. 템포가 빠르고 꿈쩍거리기 쉽고, 무르익는 음악과 반복해서 부르는 것이 선호되고 있다. 이제 피아노나 오르간 사용은 교회에서 점차 줄어들고 기타나 그룹사운드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과연 이런 것이 엄숙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며, 감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실함을 다짐하는 것보다 더욱 더 흥미 진진한 예배에 관심 갖게 만드는 것이 가당한 것인가? 우리의 예배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그(하나님)의 것이며, 그를 위하며, 그에게 지음 받은 것인데, 예배를 즐기는 데 목적을 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왕궁 사람들이나 법관들 외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음악에 흠뻑 젖어 살고 있다. 녹화나 방송 매체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들었다. 그러나 성경에 깊이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시적인 것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시를 좋아하지 않는다. 시를 읊는 것을 두려워한다. 목회 연구 가운데 우리의 신학적인 도서관들은 시에 관한 책들이 아주 알팍한 책장에 불과하다. 구약 시대에, 시편에 수반된 악기에 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시편을 찬양했을 때처럼 우리는 찬미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음악 속에 폭 담겨 있는 것에는 하나님에 관한 위대한 시들은 진흙 속에 파묻혀 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쓰여진 이후 교회 시대가 도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시를 작사한 자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음악으로 봉사하며, 교회에서 찬양으로 사역한다는 무리들 가운데 시를 사랑하고 읽으며, 작사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시는 파토스와 로고스를 표현하는 참된 도구인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 우리의 능력은 감소된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파토스나 또는 로고스나 그 어느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감상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나 강하게 도달해 있기 때문인가?

드라마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드라마틱한 형식으로 묘사되지 않았는가? 성경에는 대화체, 독백, 대중 앞에서의 연설, 그리고 거대한 행동을 낳게 하는 형식이 참으로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읊을 보라. 모세와 바로 왕을 생각해 보라. 다니엘과 느브갓네살 왕을 연상해 보라. 시내산에 있는 모세와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변화산상에 나타

난 예수님과 모세 및 엘리야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상사해 보라. 그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인가.

그런데 성가 합창이나 찬란한 악기 연주회와 비교하여 볼 때, 교회나 주일 학교에서 드라마를 찾아볼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우리의 예배 의식은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솔로몬 임금처럼 열방의 왕들이 경이로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여와 우리의 유산을 보게 할 수는 없을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15세기나 16세기의 성도들을 기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들은 길에서 기적이나 신비적인 것들을 연출하였고, 도덕성을 창출했으며 공연했던 것이다.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이여! 우리는 세속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유사한 공연을 할 수는 없는가? 우리에게 대해서 T.S. 엘리엇은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 3. 문화와 문화: 기독교인들의 삶과 행위

T.S. 엘리엇나 톨리히 같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문화란 언제나 종교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깊은 확신 및 직접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 복음주의자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완전한 기독교 문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오직 기독교적인 몇몇 행동이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우리의 주된 관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인되심을 목적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이 기독교 문화라고 부를 수는 있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건설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섬기는 사역을 목적해야 한다. 그것은 분명히 율법 아래에 있던 구약 성도들의 이상이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그 지혜를 충분히 요약하였으며, 그 지혜의 열매를 가지고 시바 여왕뿐만 아니라 열왕기나 역대기가 밝히고 있듯이 열방의 왕들을 매혹하기에 충분하였고, 그들을 불러들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영광과 지혜 및 부는 무엇인가? 칼 F.H. 헨리 박사는 최근에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전보다도 숫자적으로는 더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보다도 실제적인 영향은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다 정확히

인용할 수는 없지만 그의 주장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확고히 파악했다고 믿는다.

경건한 문화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구약 시대에 신조(credo)가 성경을 반포하며, 성경을 해석하고, 복음 선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눈여겨 보게 된다. 요나는 극히 드문 경우였다. 마찬가지로 예전(cultus) 역시 이방인들이 따듯하게 대하고 바라보도록 전적으로 진열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유대인 장막과 성전 의식 및 거룩한 구역들은 대체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으며, 그러한 것들에 가까이 접근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있었던 것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발설하신 명령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날은 그것과 다르다. 우리들의 교회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누구나 들어와도 된다. 공개적으로 공예배에 참여하도록 광고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른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비록 구약의 신조와 예전 의식이 완전히 진열된 것이 아니며, 또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문화는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는 사실이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삶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의 율법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볼 수 있었다. 근 문화는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연계되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유대인들을 벌주시려고 생각하실 때는 언제나 이방인들의 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시키거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게 할까봐 벌 주고 싶은 대로 벌하지 않으셨음을 여러 차례 시사해 주셨다. 에스겔 20장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21절 하반절과 22절을 보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으로라.

신약 시대에 있어서 신조와 예전 의식 및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는 온전히 드러났다. 땅끝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결코 모독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세상의 지도자들을 신실하신 주님의 공동체로 끌어들이기를 소망한다. 참된 문화의 유일한 참된 보고, 가장 최고의 보고로 이끌기를 바라는 것이다(사 2:2~4, 32:8, 15~18, 33:5~6을 참조하라).

우리는 문화란 우리의 최고의 사상과 최선의 행위로 구성한다고 말할 것이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및 심사는 우리 구세주 하나님에게 향한 것이라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시대 문화를 요약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20:31~35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고 핍박을 받게 될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이 있다. 그는 가는 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였다. 31~3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전에 문명화되고 발전된 도시인 에베소에 머물면서 했던 사역을 종합하여 말하고 있다. 바울은 여기서 어느 누구의 부(富)도 욕심내지 않았고, 자기 손으로 텐트를 만들면서 자신의 선교 사역과 동료들의 선교 사역에 쓸 것을 공급하며 일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그의 모든 다른 서신들 가운데서나 그 밖의 어디에서 그의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인용하였는가? 그런데 지금, 왜 이곳에서 인용하고 있을까?

설교자로서 바울은 전도서의 설교자보다 더 지혜로운 이를 인용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바울은 궁극적이며 원초적이며, 유일한 설교자를, 행위 문제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다. 문화적인 행위, 최고의 행위로서 다른 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문화적인 행위,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삶을 살면서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문화적인 행위를 기억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문화의 요점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예전의식 안에 있는 레이투르기아의 최선의 부분이 아닌가? 우리의 신조가 그러한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신임을 획득할 수는 없을까?

우리의 신학적인 노력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없을까? 섬기며, 도우며,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며, 모든 도움 가운데 가장 위대한 도움을 주며 나아갈 수는 없을 것인지? 시편 65:5, 8, 72:8~20을 보라.

**알 림!**

그동안 모아 둔 다음의 고서(상품으로선 손색이 있으나 읽는데는 무난함)들을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코자 합니다.

직접 오시든지, 지방 거주자는 화물 도착지와 주소, 성명만 알려 주시면 보내 드립니다(선착순, 미자립 교회 교역자에 우선).

하나님의 주권	문화의 성장 과정	종교와 문화의 관계
불멸의 생명	소요리문답 강해	현대신학 해설
성경의 영감과 정경	구약총론	초대교회 100년 성장사
토인비	칼바르트	신약과 비평
볼트만	구약 개론	하나님의 나라
폴 틸리히	주일의 참뜻	성령
그리스도와 인생 문제	신약 역사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선교의 동기와 목적	다니엘서의 메시아 예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이단 종교 비판	목회학	설교자상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인도	

**개혁주의신행협회**